

도, 고품질 한우 생산으로 경쟁력 갖춘다

한우개량 지원 사업 효과 '톡톡' ... 고능력 암소 4만두 선발·관리해 135억원 소득 창출

전북도는 암소개량, 가축시장 친자확인 검사 등 한우개량 지원의 성과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암소개량사업을 지원해 고능력암소에 대한 선발·관리·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의 친자확인 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한우 등록을 88.9%(전국 86.0%), 친자 일치율 91.8%(전국 90.8%)등 유전적 개량을 통해 형질이 우수한 고능력 암소로의 개량이 성공

적으로 추진됐다는 평가다.

'고능력 암소축산 조성사업'은 도내 고능력 암소의 선발관리를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등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도축성적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한 암소나 도내 암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해 상위 20%(4만두)의 암소를 관리하고 있다.

외모심사, 친자확인검사 등을 통해 후보축을 선발하고, 선발된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하고 있는 암소의 유전능력 분석 및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보

구축했다.

특히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유전능력이 좋은 암소를 선발관리하고, 저능력소를 도태해 좋은 송아지를 생산함에 따라 약 135억 원의 농가 소득창출효과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도는 또한, 한우의 정확한 이력관리를 위한 가축시장 친자확인검사 지원으로 전북 한우의 개량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우의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가축시장 거래 송아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도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6만두에 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축시장에 거래를 원하는 농가는 거래 1개월 전에 가축시장에 신청해 거래소 및 어미소에 대한 시료채취(코리털) 및 검사도 추진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50%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정책관은 "현재 한우사육 과잉 및 사료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개량을 통한 고품질 한우생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한우개량화는 유전형질 데이터에 근거한 선발과 도태를 반복하는 작업으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축산농가 및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인근에 설립 예정으로,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는 등 글로벌 인재양성 전문 교육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최선 다 할 것”

신원식 정무부지사, 무주 태권도원 방문·설립 추진상황 청취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29일 무주 태권도원을 방문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게 입학생을 모집하는 등 글로벌 지도자와 평화 사절을 육성해 분국으로 돌아가 태권도의 보급과 수련생들의 종주국 방문을 유도하는 글로벌 인재양성 전문교육 기관이다.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 인근에 설립 예정으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태권도를 매개로 문화강국을 실현하고, 올림픽 종목에서 일본 가라테와 중국 우슈의 거센 도전에 맞서 대한민국 국가 태권도의 중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

신정무부지사는 태권도원 상징지구에서 문헌종 무주군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사관학교 추진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태권도원 정밀도로 이동해 사관학교 예정 부지를 둘러봤다.

또한 태권도원의 T1경기장, 국립태권도박물관 등을 차례로 둘러보고, 태권도진흥재단 관계자와 차담회를 갖는 등 태권도원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태권도 종주도인 전북도 무주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되면, 태권도라는 한류 문화를 통해 국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원만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어청도 등 주변 섬관광 활성화 위한 현장점검 실시

조보업 행정부지사, '생태문명 여행체험 1번지 세계질 섬 관광 활성화' 앞장

조보업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어청도 등 주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조 행정부지사는 어청도를 운영하는 선박 운임 지원에 대한 관광객들의 현장 목소리와 국가어항 및 재회 섬의 날 행사 등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마을 주인과 동행하며,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생태탐방 여행상품 개발 섬 마을 축제, 홍보·마케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 섬 관광개발 사업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 친화적인 관광지 발굴과 상품개발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조 행정부지사의 이번 현장 점검 활동은 고군산 군도를 비롯한 도내 섬

들의 특성을 반영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북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조보업 행정부지사는 "섬 관광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관광변화에 대응한 섬 관련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겠다"며 "관광환경을 개선해 도내 모든 섬 지역이 '생태문명 여행체험 1

번지 전북도'가 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섬 지역의 생태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관광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고군산 군도를 비롯한 섬의 매력에 한층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관광개발 사업을 유도에 왔다. /유호상 기자

도, 청명·한식 기간

산불예방 '총력 대응'

전북도는 청명(5일)·한식(6일) 기간을 전후해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산불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 체계구축을 골자로 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감시 및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입산자가 많은 도내 주요 유명 산과 사찰변 삼승무속행취지 등 산불 취약지역 등에서 이동단속과 입차행기(3대)를 이용해 공중 감시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과 함께 불법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행위 등 예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산불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해 산불감시와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조심 계도방송을 1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도는 오는 4월 17일까지 불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설정, 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사회서비스원, 법률·노무·세무 전문컨설턴트 위촉

전북사회서비스원(원장 서양열)은 29일 도내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영컨설팅지원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컨설턴트를 위촉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법률·노무·세무 등 경영상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회서비스기관에 따른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사회서비스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컨설팅, 다수가 참여하는 집합컨설팅, 수시 상담이 가능한 노무·세무 온라인상담으로 실시된다.

오는 4월부터 방문컨설팅을 위한 사회서비스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컨설턴트 구성은 전북도지방변호사회, 광주전남법률사회, 전북노무사회, 광주지방노무사회 전 북변회를 통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을 모집 및 선발했으며, 기관종류, 규모, 종사



자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기관의 다양한 고충을 상담하고,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진 노무사는 "도내 사회서비스기관을 위한 경영컨설팅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기관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사회서비스원은 경영컨설팅지원사업 이외에도, 소규모 사회서비스기관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지원사업,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를 위한 인건보조지원사업 및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회서비스기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정책 방향 주제 세미나

전북도와 전북토종씨앗재종포럼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정책의 현황과 방향을 주제로 29일 도청 공청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토종씨앗재종포럼운영협의회'는 전주·익산·김제 여성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토종종자 보존·육성 단체다.

세미나에는 연합회 회원, 토종종자에 관심있는 도민, 관계 공무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환경오염 관행농업 등으로 사라져가는 토종종자의 보존 필요성을 홍보하고, 도민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성이 도 농자재종자집담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전북도 토종농산물에 활성화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토종종자를 중요한 전통문화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보존 육성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방역·위생 단속

도 특별사법경찰과, 이용객 증가 대비 오늘부터 내달 19일까지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는 봄 행락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30일부터 오는 4월 19일까지 5주간 해당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위생상태 및 감염병예방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내 유명 유원지, 및 봄꽃 탐방지를 대상으로 2개조 8명의 점검반을 편성(공무원 4명, 생활안전지킴이 4명)해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감염병예방) 방

역수칙계시·안내, 마스크 착용여부 등 방역수칙, ▲(식품위생) 무선고 일 반(휴게)음식점 영업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봄꽃축제장 등 유원지 유원지뿐만 아니라, 이동에 위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골프장 등 위생점검과 방역수칙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적인 요소가 발

견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유동인구 확립과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 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아울러, 불법적인 행위 발생 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280-138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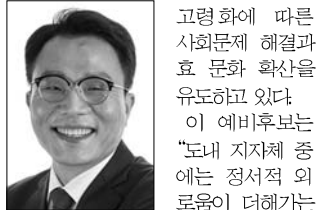
"효도수당 지원, 3대가 행복한 전주"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9일 "심각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전통적 형태의 가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보장적 생애주기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대안으로 "전주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사는 세대의 부양자에게 매월 5만 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원금을 마련해 가족공동체 복원 및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현재 아산시, 함안군, 의령군 등은 3대가 살면서 효행을 실천하는 효행인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효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도내 지자체 중에는 정서적 위 로움이 더해가는 지역 어르신들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정책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이나 홀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통해 지역 복지 분위기 마련에 진한 감동을 주는 지역도 있다"면서 "효도수당은 고령화 사회에 맞는 가족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관련 조례 제정 등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윤상 기자

"택시 쉼터 조성·승장장 확대"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 후보는 지난 28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북지회본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택시기사 쉼터 조성 및 승장장 확대를 통해 택시기사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보통 12시간씩 근무하고 제대 후 휴식을 취하지 못하며, 비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위기대처 능력 저하로 자칫 사



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히 환경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쉼터 예정지는 전주시청사 건립 시 종알경기장과 대성동 공공주차장, 세이브존 승

강장, 홈플러스 옆, 한옥마을 승강장 주변 등에 접근성을 고려해 도심 근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로컬푸드 직매장, 권역별로 확대"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임정엽 전 원주군수가 전주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권역별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원주군수 시절 보여준 로컬푸드 성공신화를 전주에서도 재현해 보이겠다는 의지다.

임 전 군수는 29일 정책 발표를 통해, "로컬푸드의 장점인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전주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 소비자와 농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직매장 신설은 예코시티,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 최근 몇 년새 인구가 급증한 신도시와 서부신시가지를 중심



으로 추진하고 원도심에도 권역별로 확대 개설할 계획이다.

그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권역별로 들어서면 시민들은 집 근처 매장에서 당일 배송된 지역먹거리를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들은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